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
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 *
극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 *
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
있습니다. * * *

법공양 페이지

천 태 종



종정법어

“도덕성 회복에 힘쓰길”

도덕성회복하는 불기 2540년 방재년을 맞이하여 도덕의 세상이 펼쳐지는 지혜와 사랑의 은혜가 되도록 하라고 법어를 내렸다.
종정법어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고 자비를 행하는 사회와 국가가 되도록 많은 바 처해있는 곳에서 다같이 노력 정진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 각자 스스로 도덕적 생활을 실천할 때 저절로 이 나라는 불국토가 될 것”이라고 설하면서 조국의 통일 성취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축원했다.

연 혁

- 불기 1138년(594년) 중국의 수나라의 지자대사가 법화삼대부를 완성하여 천태종 창립.
- 불기 1641년(1097년) 고려 숙종2년 의 천대각국사께서 국청사에서 정식으로 한국천태종 개립.
- 불기 1968년(1424년) 조선 세종6년 역 불경책으로 천태종은 선종으로 통폐합, 그 후 천태종은 법불교적인 절결속에 흡수되어 민간불교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옴.
- 불기 2489년(1945년) 음력 5월5일 상월원각대조사께서 현위차에 구인사 창건.
- 불기 2510년(1966년) 8월30일 구인사에서 천태종 중창.
- 불기 2511년(1967년) 1월24일 정부에 대한불교천태종 등록, 초대종정에 상월원각대조사 취임.
- 불기 2514년(1970년) 음력 11월28일 종헌선도.
- 불기 2518년(1974년) 음력 4월 27일 상월원각대조사 일반.
- 불기 2518년(1974년) 7월2일 제2대 종정에 다종대종사 취임.
- 불기 2521년(1977년) 5월 천태종보 창간.
- 불기 2526년(1982년) 11월16일 금강학원과 금강불교대학 설립.
- 불기 2529년(1985년) 1월1일 월간금강 창간.
- 불기 2535년(1991년) 4월16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으로 허가받음.
- 불기 2537년(1993년) 12월22일 김도용 대선사 제3대 종정으로 추대.
- 불기 2539년(1995년) 6월17일 중국청사에 한·중 천태종 조사기념당 건립

전운덕 총무원장이 말하는

천태종의 21세기

구인사 성역화

다가올 21세기는 우리 사회의 모든 방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에 의해 그 나라의 흥망이 갈리는 것처럼 종교 또한 그 경쟁력에 따라 흥쇠가 결정될 것입니다. 천태종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중창 이래 일천한 역사 속에서도 일취월장하는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것은 천태종이 현대인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태종의 장점은 무엇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의천 대각국사가 천태종을 개립한 이래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성입니다. 둘째는 동북아 삼국이 같은 종명을 갖고 있다는 국제적인 인지도입니다. 셋째는 국내의 여타 종단들과는 달리 전 종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총본산 구인사의 위상입니다.



교육 복지 수행전력 ‘소백에서 세계로’

종무전산화등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4년제 불교대 설립... 해외교류 확대

그리고 총본산 구인사는 중국의 국청사, 일본의 연력사외도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가짐으로써 국제적으로 천태종의 위상을 높여갈 것입니다.

교육불사

천태종의 위상으로 볼때 정규대학의 설립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천태종의 대학설립은 대조사님 재세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던 사업으로 대전지역을 지명하여 말씀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천보다는 말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종단으로써 대학의 설립은 매우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종단에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중국 국청사 中華 천태종조사기념당에 봉안된 천태지사(中) 대각국사(右) 상월조사(左)의 청동좌상.

한국 천태종의 뿌리를 찾고 韓中 불교교류의 새 장을 열기위해 중국 천태산에 세운 조사기념당.

본격적인 대학설립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대전에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조사님의 유지에 따라 대전지역에 부지를 마련했고 종합대학보다는 4년제 불교전문 대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에서는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예술을 섭렵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천태종의 불교대학이 천태종 승려의 양성차원이 아니라 범불교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운영이나 시설도 사관학교처럼 전원을 학교에서 수용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천태종은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겠다는 자세로 사회사업에 더욱 힘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제교류

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불교 교양대학인 금강 불교대학이 4년제 정규대학으로 설립되어 21세기를 준비하는 천태종의 4년제 대학시대를 열게될 것입니다.

지난해 부터 천태종은 불교의 국제교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불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 북경에서의 제1회 동북아 삼국대회가 태동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대회가 삼국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우리사회는 점점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단은 이러한 사회현상에 발맞추어 올해를 ‘복지사업 원년’의 해’로 삼을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종단에서는 부산에 종합불교복지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부산 복지관은 몇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몇 지역을 선정해야 하고 부산에 복지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 부지를 매입하고 올해 그 착상을 뜨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삼보정재의 사회환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불교계가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

올해는 지지대사 일반 1400주년을 기해 한중일 3국천태종교류를 정례화하려고 합니다. 지지대사를 종조로 삼고있는 3국의 천태종이 각각 일반 1400주년 행사를 거행하면서 상대국의 천태종을 초빙하는 형식으로 빈번한 교류를 통한 유대를 강화해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불교교류는 더욱 빈번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들이 이러한 교류를 치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세계화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감각을 가진 인재 양성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교류는 상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로가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땅은 곳마다 부처님 땅 도기에 하소서

대한불교 천태종의 또 한 불자
전통사찰건축 및 일반건축

동해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남영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2번지
전화 : (02) 571-5101 ~ 3
팩스 : (02) 571-5104

우림목재

취급목재

육송(戮松)
적송(赤松, 作陽木)
국유림벌목(國有林伐木)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21-45
전화 : (0391) 41-5787, 42-9258
팩스 : (0391) 41-6694

진승목재

믿음과 신뢰로서 새롭게 도전하는 (주)진승목재는 미국, 캐나다의 동남아 원산지를 직접 답사후 양질의 원목만을 수입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용 목재를 전문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성실이라면 진승목재를 찾으십시오

목재산 HARD WOOD : 홍송, 스프로크스, 스키, 미송무향, 화이트오크, 향나무, 울라트, 하드메플, 누름, 비취, 흑단
SOFT WOOD : 단풍, 오리목
종 공 산 : 오동나무
날 알 재 : 마디카, 구무미, 타운, 아카디스, 사무라

대표이사 김진태 합장
목재담당이사 양승생 합장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802-25
전화 : 574-3551-54 / 팩스 : 577-9915

전국 전통사찰 석재공사, 문화재 보수
문화재 등록 제 745 호

운강석재

대표 남궁치연 합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34-3
전화 : (02) 586-1941
(0351) 872-4963